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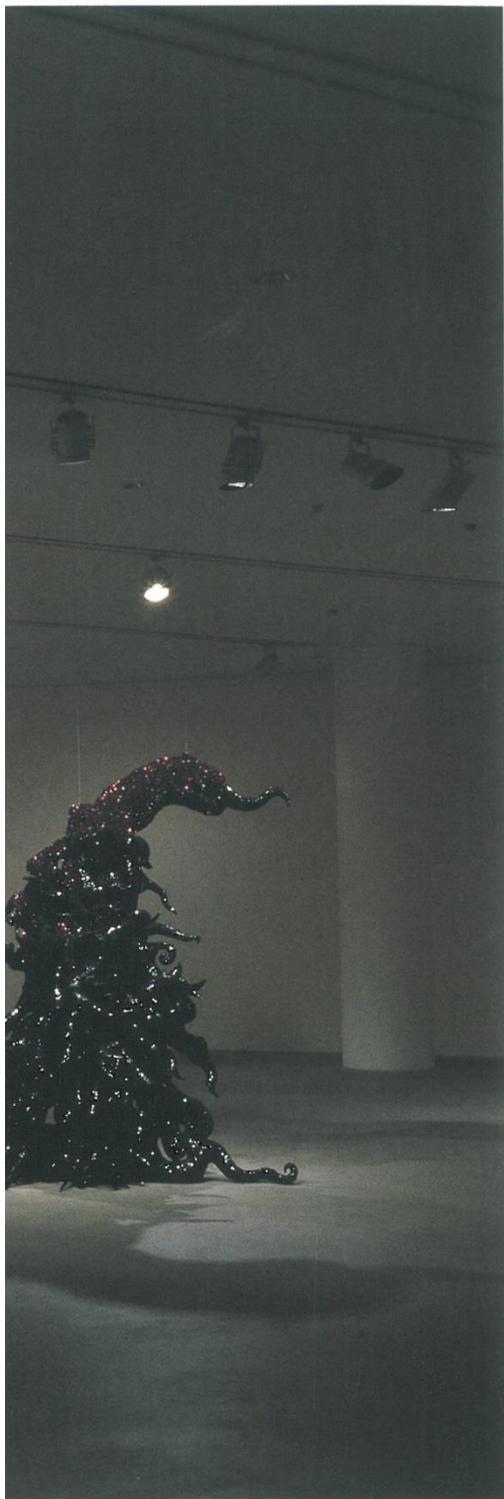
ABSTRACT

〈Connect 1: Still Acts-
Kim Sora, Lee Bul, Chung Seoyoung〉

EXHIBITION FOCUS

Artsonje Center presents an exhibition entitled, Connect 1: Still Acts with Kim Sora, Lee Bul, and Chung Seoyoung from August 27 through November 20, 2016. Three participating artists in this exhibition a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artists who have shown between the year 1998 and 2004 at the center where was recently closed for remodeling. The center, since its inauguration, had closed twice for a period of time which marks the phases in the center's history; one between 2005 and 2006 and between 2015 and 2016 the other. This exhibition deals with the earlier period. As the title 'Connect' suggests, this exhibition aims to look back the center's innovative exhibitions and constant support that contributed to the contemporary art from the point of the present instead of seeing them as gaps.

“What does the exhibition, 〈Connect 1: Still Acts- Kim Sora, Lee Bul, Chung Seoyoung〉 mean in the condition of Korean contemporary art? This exhibition shows the institution's attempt to historicize its own activities where actively has adopted contemporary art practices. However, one can also sense that the exhibition also seeks to find its future direction within the flow of the present and without falling in to the trap of “historicization” that may cause fossilization and objectification. For this, three artists in the exhibition attempt to incorporate the works of the past into the present context by giving new interpretation to them. Here, we find the center's ambition to perform the task of historicization in the form of contemporaneity that connects continuous flow from the past, present to the future while managing its status as showcase for contemporary art.”



Connect 1: Still Acts

김소라 이불 정서영

현재 리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아트선재센터에서 8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Connect 1: Still Acts-김소라, 이불, 정서영전>이 열린다. 이 전시에 참여하는 세 작가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의미 있는 작품을 선보인 작가 중에 선정되었다. 1998년 아트선재센터가 현재의 전시장을 개관한 이후 2005년과 2006년 사이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사이 두 번의 휴지기가 있었는데, 이 전시는 구분된 시기 중 전반부를 다룬다.



흐름 위에서 돌아보기

이임수 | 미술사

'커넥트(Connect)'라는 전시 명칭이 암시하듯이 이 전시는 잠깐 동안의 멈춤을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으로 바라보고 아트선재센터가 동시대 미술에 보여준 꾸준한 지원과 새로운 기획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려 한다. 또한 현장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참여 작가들의 면모는 아트선재센터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있음을 예시한다. <커넥트1: 스틸 액츠>에 참여하는 이불, 정서영, 김소라는 각각 1998년 <이불>, 2000년 <전망대>, 2004년 <안타르티카(Antartica)>에서 전시한 작품을 다시 선보인다. 이불은 1998년에 전시된 <사이보그 W 1>에서부터 <사이보그 W 4>까지 4점을 설치작업인 <딜루비움(Diluvium)>을 배경으로 다른 연출로 선보이며, 당시에는 전시하지 않았던 <화염>도 함께 전시한다. 정서영은 <전망대>, <꽃>, <수위실>을 새로운 텍스트 작품인 <더 웨이즈(The Ways)>와 함께 전시한다. 또한 2010년의 공연 <미스터 김(Mr. Kim)>과 미스터 리(Mr. Lee)의 모험에서 출연자가 착용한 요괴 귀 한쪽을 <모르는 귀>라는 제목으로 전시장 벽에 건다. 그는 2000년 전시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면서 현재의 공간 안에 과거의 경험과 흔적을 소환한다. 김소라는 2004년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리바이벌하는데, 100명의 예비 기부자에게 책을 기부할 것을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기증받은 책들을 아트선재센터의 선별된 아카이브 자료들과 함께 전시하고, 전시 기간 동안 책들로부터 발생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간성이 두드러지는 이 전시의 핵심은 경험과 과정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이며, 이는 각 작가의 작품과 전시뿐만 아니라 아트선재센터의 전시 다큐먼트들에 의해 이뤄진다. 참여한 작가들이 던지는 거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술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사물, 서사, 의미, 공간, 시간,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인식되는가? 작가들이 다루는 소재와 주제는 한국 동시대 미술의 시각과 흐름을 짐작케 해준다. 1980년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정치적 참여에서 벗어나

1990년대의 다양한 매체적 혼종, 형식적 절충, 담론의 층위들을 실험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을 건너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이르러 예술가들은 일상적인 공간과 경험 속에서 예술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불의 사이보그

이불의 작품들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전반 미술의 현장에서 긴급하게 제기된 문제를 상기시킨다. 그것은 신체와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이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체 문제와 분리불가한 감각의 문제이다. 3층 전시장 입구 벽에 설치된 <화염>은 스펅글과 시퀀으로 장식된 생선이 들어 있는 100개의 비닐 팩으로 구성된다. 생선이 부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시각적인 자극을 압도하는 악취가 변질되고 변형되기 쉬운 육신을 예시하는 한편 묘한 성적 지시물의 기능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 <화염>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조건을 암시하면서 전시장 천장에 걸려 있는 사이보그의 몸과 대비를 이룬다.

이불의 <사이보그 W 1-4>는 기술과 신체에 관한 관심을 암시하는데, 특히 특이점을 향해 나아가는 최근 기술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 작품이 선보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는 1980년대를 휩쓸었던 사이버펑크 문화와 함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기술을 망라한 사이보그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잠깐 시들해졌다가 되살아난 시기였다. 기계 몸을 연상시키는 <사이보그 W 1-4>는 1990년대 중후반 기계 몸을 소재로 한 일본 만가 및 애니메이션과 공명하면서, 인간 몸과 인간 정신의 자리에 들어오려는 기계와 고스트(소프트웨어)를 조각적인 방식으로 시각화했다. 사이보그들이 걸려있는 전시장 바닥에는 2012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전시된 <딜루비움>이 설치되는데, 기존의 설치와는 달리 골판지 상자들로 덮인 바닥 위에 철제 프레임이 투명한 비닐에 싸여 전시된다. 이는 전시장에 하나의 풍경을 만들면서 설치된 작품들의 배경이 되어 기계와 고스트로 구축된 현재의 세계 이미지를 암시하는 듯하다.

정서영의 현실의 대상물

정서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술작품이 발휘하는 존재론적인 신비와 인식론적인 혼동을 다룬다. 언어와 사물을 함께 다루면서 작가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인식되는지 질문한다. 1999년과 2000년에 제작된 <전망대>, <꽃>, <수위실>은 현실의 대상물이 간략하고 인상적인 형태로 변형되고 축소되거나 확대되어 텅 빈 전시장에 놓인다. 작품은 현실의 대상물, 즉 전망대, 꽃, 경비실에 대한 재현이면서 동시에 각 언어기호(말), 즉 '전망대', '꽃', '경비실'에 대한 개념적 표상들이다. 이 작품들을 둘러싼 공간은 고요하며 작품들 간에 팽팽한 긴장이 형성된다. 또한 공간적 긴장에 덧붙여지는 엉뚱한 상상들은 세계의 표상들 혹은 기호들의 세상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들은 하나의 자율적인 존재이고 대상물이다. 정서영의 오브제들은 재현물이 독립적인 사물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 사유하고, 더 나아가 언어기호의 표상 내용이 물질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영역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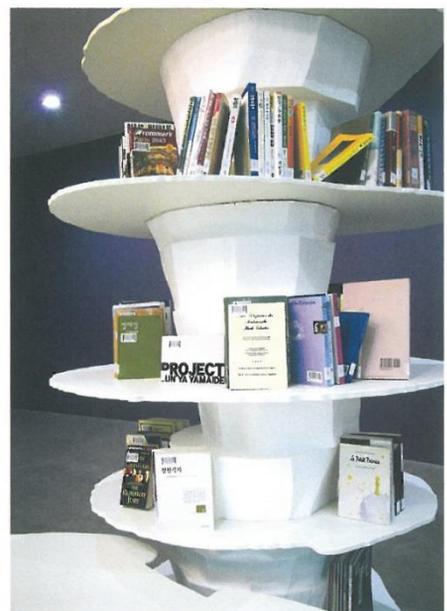
정서영은 두 개의 단어를 대립시키는 새로운 텍스트 작품 <더 웨이즈>에서 익숙한 기대를 위반하는 대결 구도를 만든다. 'FINGER VS FIST/ FEED VS BACK /ABILITY VS INVISIBILITY /DAWN VS NIGHT /TWIN VS TWINS' 등과 같은 대결 구도는 배타성에 입각한 이항대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된 병치에 가깝다. 병치된 두 단어는 시간적인, 신체적인, 공간적인(관계적인), 시간적인(과정적인) 차원에서 다른 위치와 방향을 암시한다. 세상에 다르게 존재하기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기 모두를 보여주는 작업으로 작가의 최근의 수행적인 작업들과 연관된다. <모르는 귀>는 2010년의 공연과 현재의 퍼포먼스를 잇는 매개물이 되며 벽에 걸려 있으면서 존재의 여러 차원을 이야기해준다.

김소라의 라이브러리

김소라의 프로젝트는 1990년대 이후 관계미학이라 불리는 접근 방법, 즉 글로벌 자본주의 맥락에서 일상적 차원의 미시적 해방 공간 만들기를 수행하면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작업 전술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의 <라이브러리>는 2004년 김홍석과 함께 한 전시 <안타르티카>에서 선보인 프로젝트 <엘리펀트 섬>의

한 부분을 이루던 것이다. 특히 특정 국가나 개인의 소유권이 부정되고 세계가 공유하는 지역인 남극은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 다른 세상과 다른 관계의 가능성을 꿈꾸게 한다. 여기서 작가는 과정으로서의 예술 작품에 내재하는 여러 가능성을 부분적인 단계들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소라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와 의미가 가능한 영역을 상상적으로 설정하고 이 안에 일상의 관행들을 끌어들이어 작업한다. <라이브러리>에서는 도서관과 기부가 그것이고, 작가는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로 나아간다.

김소라의 2016년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작가가 작성한 100명의 기부자 명단에서 시작된다. 그들에게 작가의 요청이 담긴 서한이 전달되고 기부 희망자는 여기에 실린 지시에 따라 책을 기부한다. 기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상실하여 기부자에게 소장할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진 기부의 과정이 마무리되면 작가는 수집된 책들과 그것들에 포함된 여러 지각적, 의미적 요소들을 가지고 후반 작업을 진행한다.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정한 관계의 차원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들을 예술의 영역에 끌어들이어 어떻게





2004년 열린 김소라 개인전(인타르티카)에서 선보였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새롭게 구현된다

새로운 관계와 과정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새로운 공간과 관계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김소라, 이불, 정서영의 작품을 관통하는 시간성은 무엇보다 기억과 연관되며 축적된 기억으로서 역사의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전시가 지시하는 변곡점과 연속과 불연속의 동시대 한국 미술의 흐름을 보여준다. 1995년 아트선재센터가 전시장 설계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전시장 자리에 있던 가옥들에서 개최한 <썩>전은 회고적인 현대미술의 전시 관행을 동시대적 미술 실천의 쇼케이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건축공간을 전시장이자 작업 현장, 작품 자체로 끌어들이면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공간이었다. 아트선재센터의 이러한 위치와 역할은 <커넥트 1: 스틸 액츠>가 포괄하는 1997년 외환위기와 이후 극복 시기에 시작된 아이러니한 미술계의 활력과 풍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커넥트 1>이 예시하는 시기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미술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비평은 《월간미술》2015년 8월호 특집 <광복 70주년, 한국미술 70주년>을 참조하였다.)

그렇다면, 2016년 현재 한국 미술의 상황에서 <커넥트 1: 스틸 액츠>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전시는 동시대 미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기관이 그간의 자기 활동을 역사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객관화와 고정화의 틀을 함축하는 '역사화'에 빠지지 않고 현재적인 흐름 안에서 끊임없이 접선을 그어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전시에 참여한 세 작가는 새로운 해석과 작업을 통해서 과거의 작업을 현재화하려 시도한다. 여기에서 아트선재센터의 야심이 보인다. 이 기관은 동시대 미술의 쇼케이스 위치를 유지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동시대적인 현재화로서의 역사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